BARUN EDUCATION

文 識 性 · L I T E R A C Y

문식성(文識性) 독해력 훈련 워크북

2018년도
언어논리영역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 기출 기반
문식성(文識性) 독해력 훈련 · 확장판 v5.6

5급공채 2018 · 심화선별권 · 통합본

수록 10개 지문 · 10문항 · 평이하거나 짧은 지문을 걸러낸 심화 선별본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010-9968-1387

차례

각 회차는 훈련 준비 → 5단계 훈련 → 읽기 일지·해설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01 봉수 — 횃불 다섯 개에 담긴 신호 체계 [문 1]
인문·제도사 · 규칙과 운용

02 나선정벌 — 두 차례의 파병은 어떻게 달랐는가 [문 2]
인문·군사사 · 두 사건의 대조

03 사피엔스는 왜 세계를 정복했는가 — 세 가지 설명 [문 3]
인문·인류사 · 경쟁하는 가설

04 오스만 제국의 통치 — 티마르·밀레트·데브쉬르메 [문 4]
인문·세계사 · 세 제도의 병렬

05 반독점법은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 세 사람의 답 [문 5]
사회·법경제사 · 입장의 변천

06 좌파와 우파는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문 7]
사회·정치경제 · 결론 도출

07 토지사유제 없이 자본주의는 불가능한가 [문 22]
사회·경제제도 · 반박과 분류

08 에밀레종은 왜 그렇게 울리는가 [문 23]
과학·음향공학 · 비교와 원리

09 만동묘와 대보단 — 명나라 황제의 제사는 어떻게 이어졌는가 [문 24]
인문·조선사 · 두 제단의 연대기

10 네트워크 — 힘을 얻은 것은 누구인가 [문 25]
사회·정보사회론 · 특성과 양면성

워크북 규격에 따라 제외한 지문

- 난도 기준 제외 — 문 6(베블런의 과시소비) : 논지가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요약되어 선지 대조가 단순, 문 21(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 오답 선지가 모두 명백한 역진술이라 변별력이 낮음
- 분량 예외 — 문 23(에밀레종)은 859자로 수록 지문 중 가장 짧으나, 이 시험의 유일한 자연과학·기술 지문이고 서양·중국·한국 범종의 비교가 까다로워 예외로 수록
- 빈칸·배열·어법형(문 8·9·10·27·28·29), 밑줄 판단·분석형(문 11·26) : 지문 전체 독해가 아닌 국소 판단 문항이므로 규격상 제외
- 논리 퀴즈·형식 추론형(문 12·13·14·33·34·35) : 독해가 아닌 형식 논리 문항이므로 제외
- 논지 약화·강화·평가형(문 15·16·17·18·32·36·37·38·40), 〈보기〉 ㄱㄴㄷ형(문 30·31) : 별권(평가·복합권) 대상
- 공유 지문 세트(문 19·20, 문 39) : 한 회차 1지문 원칙에 맞지 않아 제외

※ 수록 문항의 정답은 지문 대조로 검증했으나, 학습 전 **공식 정답표**와 한 번 더 대조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1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봉수 — 횃불 다섯 개에 담긴 신호 체계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제도사

설명형 · 규칙과 운용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봉수 #연변·내지·경봉수대 #파발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조선시대에는 변경의 급보를 전할 때 봉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봉수의 '봉'은 횃불을 의미하며, '수'는 연기라는 뜻을 지닌다. 봉수란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사용해 릴레이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봉수 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은 조선시대 세종 때의 일이다. 세종은 병조 아래에 무비사(武備司)라는 기구를 두어 봉수를 관할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다. 봉수대는 연변봉수대, 내지봉수대, 경봉수대로 나뉘어져 있었다. 연변봉수대에서는 외적이 접근할 때 곧바로 연기나 불을 올려 급보를 전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여러 곳의 봉수대를 거쳐 한양으로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봉수로는 다섯 개 노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1로는 함경도 경흥에서 출발하여 각지의 봉수대를 거친 다음 한양의 경봉수대로 이어졌다. 제2로는 동래에서 출발하는 노선이었고, 제3로와 제4로는 평안도 강계와 의주에서 각각 출발하는 노선이었다. 제5로도 순천에서 시작하여 경봉수대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봉수대에서는 봉수를 다섯 개까지 올릴 수 있었다. 평상시에는 봉수를 1개만 올렸고, 적이 멀리서 접근하는 것이 보이면 2개를 올렸다. 적이 국경에 거의 다가왔을 때에는 3개, 국경을 침범하면 4개를 올렸다. 또 조선군이 외적과 전투를 시작할 때 5개를 올려 이를 알려야 했다. 연변봉수대가 외적의 접근을 알리는 봉수를 올리면 그 소식이 하루 안에 한양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봉수를 올려도 어떤 내지봉수대에서는 앞 봉수대의 신호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날씨 때문에 앞 봉수대에서 봉수가 몇 개 올라갔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는 봉수군이 직접 그 봉수대까지 달려가서 확인해야 했다. 봉수대를 지키는 봉수군에게는 매일 올리는 봉수를 꺼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 고되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을묘왜변 때에는 연변봉수대의 신호가 내지봉수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선조는 선왕이 을묘왜변 당시 발생한 이 문제를 시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봉수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파발 제도를 운영하였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1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개념 정의 → 조직과 노선 → 신호 규칙 → 한계와 보완**

정의 밤에는 횃불, 낮에는 _____ 를 사용해 릴레이식으로 급보를 전하는 방식

▼

조직 세종이 병조 아래 무비사를 두고, 연변·내지· _____ 대로 나누어 다섯 노선을 운영

▼

규칙 평상시 1개, 접근 2개, 국경 근접 3개, 침범 4개, _____ 시작 5개

▼

한계 날씨와 봉수군의 이탈로 신호가 끊기자 선조는 _____ 제도를 함께 운영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릴레이식**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선조는 내지봉수대가 제 기능을 하지 않자 을묘왜변 때 봉수 제도를 폐지하고 파발을 운영하였다.
② 햇빛이 강한 날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봉수를 올리지 않고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③ 연변봉수대는 군사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낮에 횃불을 올리고 밤에는 연기를 올려 경봉수대에 알려야 했다.
④ 연변봉수대는 평상시에 1개의 봉수를 올렸지만, 외적이 국경을 넘으면 바로 2개의 봉수를 올려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⑤ 조선군이 국경을 넘은 외적과 싸우기 시작할 때 연변봉수대는 5개의 봉수를 올려 이 사실을 내지봉수대로 전해야 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1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⑤ — 글은 조선군이 외적과 전투를 시작할 때 봉수 5개를 올려 이를 알려야 했다고 밝혔다. 또 연변봉수대가 봉수를 올리면 그 소식이 여러 봉수대를 거쳐 한양으로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연변봉수대가 5개를 올려 내지봉수대로 전한다는 진술은 글에서 알 수 있다. 오답: ①선조는 봉수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파발을 운영했을 뿐, 봉수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 을묘왜변은 선왕 대의 일이다. ②봉수군이 직접 달려간 것은 앞 봉수대의 신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봉수대까지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봉수대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며, 햇빛이 강한 날에 대한 규칙도 없다. ③밤에 횃불, 낮에 연기가 원칙이므로 낮과 밤이 뒤바뀌었다. ④국경을 침범하면 4개를 올린다. 2개는 적이 멀리서 접근할 때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봉수의 뜻과 제도의 정비(~"설치하였다.") ② 봉수대의 구분과 다섯 노선(~"연결되어 있었다.") ③ 봉수 개수의 규칙과 전달의 한계(~"확인해야 했다.") ④ 봉수군의 이탈과 파발(~"운영하였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정의: (연기) / 조직: (경봉수) / 규칙: (전투) / 한계: (파발)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릴레이식' = 한 곳에서 다음 곳으로 차례차례 이어 넘기는 방식. 채점 포인트: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 달린다'는 중계의 뜻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숫자 규칙(1~5개)과 조직 이름(연변·내지·경봉수대), 그리고 시간 순서(세종·을묘왜변·선조)가 한 글에 함께 놓인 회차입니다. 세 축을 따로 메모해 두면 선지가 어느 축을 건드렸는지 바로 보입니다. 낮과 밤을 뒤바꾼 ③번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2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나선정벌 — 두 차례의 파병은 어떻게 달랐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군사사

설명형 · 두 사건의 대조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변급 #신유 #네르친스크 조약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1651년에 러시아는 헤이룽강 상류 지역에 진출하여 알바진 성을 쌓고 군사 기지로 삼았다. 다음해 러시아군은 헤이룽강을 타고 동쪽으로 진출하였다. 러시아군은 그 강과 우수리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새로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 했다. 청은 러시아가 우수리강 하구에 기지를 만들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고탑(寧古塔)에 주둔하던 부대로 하여금 러시아군을 막게 했다. 청군은 즉시 북상해 러시아군과 교전했으나 화력에 압도당하여 패배하였다. 이에 청은 파병을 요청해왔다. 조선은 이를 받아들여 변급이라는 장수를 파견하였다. 변급의 부대는 두만강을 건너 영고탑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청군과 함께 북상하였다. 출발 이후 줄곧 걸어서 북상한 조선군은 도중에 청군과 함께 배에 올라 강을 타고 이동하였다. 그 무렵 기지를 출발한 러시아 함대는 알바진과 우수리강 하구 사이의 중간에 있는 헤이룽강의 지류 입구로 접어들어 며칠 동안 남하하고 있었다. 양측은 의란이라는 곳에서 만나 싸웠다. 당시 조선과 청의 연합군이 탑승한 배는 크고 견고한 러시아 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에 연합군은 청군이 러시아 함대를 유인하고, 조선군이 강변의 산 위에서 숨어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사격을 가하는 전법을 택했다. 작전대로 조선군이 총탄을 퍼붓자 러시아 함대는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조선군은 사상자 없이 개선하였다. 청은 1658년에 또 파병을 요청했다. 조선은 이를 받아들여 신유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 군대를 파견하였다. 조선군은 청군과 합세하고자 예전에 변급의 부대가 이용했던 경로로 영고탑까지 북상했다. 함께 이동하기 시작한 조.청 연합군은 쑹화강과 헤이룽강의 합류 지점에 이르러 러시아군과 교전했다. 청군은 보유한 전선을 최대한 투입했다. 조선군도 배 위에서 용감히 싸웠다. 조선군이 갈고리를 이용해 러시아 배로 건너가 싸우자 러시아 병사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 조선군은 러시아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총을 보유했지만, 평소 갈고 닦은 전투력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패배한 러시아군은 알바진으로 후퇴하였다. 러시아와 청은 몇 차례 회담을 거쳐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알바진과 우수리강의 하구 지점을 잇는 수로를 포기하고 그 북쪽의 외흥안령 산맥까지 물러났다. 또 그 산맥 남쪽 지역을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2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배경 → 1차 파병과 전법 → 2차 파병과 전법 → 조약의 결과**

배경 러시아가 헤이룽강 상류에 알바진 성을 쌓고 동진하자 청이 조선에 _____ 을 요청했다

▼

1차 _____ 의 부대가 의란에서, 청군이 유인하고 조선군이 산 위에서 사격하는 전법으로 승리

▼

2차 신유의 부대가 쑹화강과 헤이룽강 합류 지점에서 _____ 를 이용해 배로 건너가 싸웠다

▼

결과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는 _____ 산맥까지 물러나고 남쪽을 청의 영토로 인정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개선**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신유의 부대는 두만강을 건너 북상하다가 의란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하였다.

② 변급의 부대는 러시아군을 우수리강의 하구 지점에서 만나 전투를 벌였다.

③ 변급의 부대는 러시아군과 교전할 때 산 위에 대기하다가 러시아 함대를 향해 사격하는 방법으로 승리했다.

④ 변급의 부대가 러시아군과 만나 싸운 장소는 네르친스크 조약의 체결에 따라 러시아 영토에 편입되었다.

⑤ 신유의 부대는 배를 타고 두만강 하구로 나갔다가 그 배로 쑹화강과 헤이룽강의 합류 지점으로 들어가 러시아군과 싸웠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2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③ — 1차 파병에서 조선과 청의 연합군이 탄 배는 러시아 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청군이 러시아 함대를 유인하고 조선군은 강변의 산 위에 숨어 있다가 사격을 가하는 전법을 택했고, 그 결과 러시아 함대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이 부대가 변급의 부대이므로 ③이 맞다. 오답: ①의란에서 싸운 것은 1차 파병의 변급 부대다. 신유의 부대는 쑹화강과 헤이룽강의 합류 지점에서 교전했다. ②변급의 부대가 러시아군을 만난 곳은 의란이며, 우수리강 하구는 러시아군이 기지를 만들려 했던 곳이다. ④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는 알바진과 우수리강 하구를 잇는 수로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물러났으며 그 남쪽은 청의 영토가 되었다. 의란은 그 수로 구간에 있으므로 청의 영토가 된다. ⑤신유의 부대는 변급의 부대가 이용했던 경로로 두만강을 건너 걸어서 영고탑까지 북상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러시아의 진출과 청의 파병 요청(~"파견하였다.") ② 1차 파병의 이동과 전투(~"개선하였다.") ③ 2차 파병의 이동과 전투(~"후퇴하였다.") ④ 네르친스크 조약(~"인정하였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배경: (파병) / 1차: (변급) / 2차: (갈고리) / 결과: (외흥안령)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개선' =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옴. 채점 포인트: '돌아온다'는 귀환의 뜻까지 담았는가. 사상자 없이 돌아왔다는 맥락과 이어 적으면 좋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지명(헤이룽·우수리·쑹화·의란·알바진·영고탑)과 인물(변급·신유)이 두 사건에 나뉘어 배치된 회차입니다. 간단한 지도를 그리고 1차와 2차를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선지가 갈립니다. 두 사건을 뒤섞은 ①·②번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3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사피엔스는 왜 세계를 정복했는가 — 세 가지 설명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인류사

논증형 · 경쟁하는 가설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인지혁명 #유연성 이론 #담화 이론

나의 예측 (한 문장)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인간’이란 말의 의미는 ‘호모 속(屬)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種)이 존재했다. 불을 가졌던 사피엔스는 선조들에 비해 치아와 턱이 작았고 뇌의 크기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피엔스는 7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 기술과 사회성이 뛰어난 사피엔스는 이미 그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다른 종의 인간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하였다. 사피엔스의 확산은 인지혁명 덕분이었다. 이 혁명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사고방식의 변화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그들의 언어가 있었다. 그렇다면, 사피엔스의 언어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사피엔스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 곧 그들의 언어는 유연성을 지녔다. 이로써 그들은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사피엔스가 다른 종의 인간들을 내몰 수 있었던 까닭이 공유된 정보의 양 때문이었다는 이론이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유된 정보의 양이 성공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이론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사피엔스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사회적 협력을 다른 언어보다 더 원활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다. 사피엔스는 주변 환경에 대한 담화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담화도 할 수 있었다. 그런 담화는 상호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했고 협력을 증진시켰다. 작은 무리의 사피엔스는 이렇게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의 두 이론, 곧 유연성 이론과 담화 이론은 사피엔스의 정복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직접적 원인은 그들이 사용한 언어만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는 데 있다.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존재는 사피엔스뿐이었다. 그들이 지닌 언어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사피엔스는 개인적인 상상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사회는 서로 모르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복잡한 거대 사회로 발전될 수 있었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3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배경 제시 → 첫째 설명 → 둘째 설명 → 필자의 답**

배경 7만~3만 년 전의 _____ 으로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었다

▼

설명 1 제한된 소리로 무한한 문장을 만드는 _____ 덕분에 정보량이 커졌다는 이론

▼

설명 2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담화가 관계를 긴밀하게 해 _____ 을 증진시켰다는 이론

▼

필자 직접 원인은 _____ 것에 대한 정보 공유 — 공통의 신화가 거대 사회를 만들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유연성**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사피엔스의 뇌 크기는 인지혁명 이후에야 현재 인류의 그것과 비슷해졌다.

② 유연성 이론과 담화 이론에 따르면 공유한 정보의 양이 사피엔스 성공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③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이주를 시도한 때부터 약 4만 년 후였다.

④ 담화 이론에 따르면,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보다 사피엔스에게 더 중요하였다.

⑤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을 멸종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상상이나 신화와 같은 허구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3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⑤ —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는 정복의 직접적 원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 언어의 특성에 있다고 못박는다. 그 덕분에 개인적인 상상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공통의 신화를 짜낼 수 있었으며, 서로 모르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오답: ①사피엔스의 뇌 크기는 불을 가졌던 시기에 이미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했으므로 인지혁명 이후에 비슷해진 것이 아니다. ②공유된 정보의 양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담화 이론의 입장이며, 필자도 두 이론 모두 부분적 설명일 뿐이라고 본다. ③사피엔스는 7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간 뒤 '급속히' 퍼져 다른 종을 멸종시키기 시작했다고 했을 뿐, 4만 년이라는 간격은 글에 없다. 7만~3만 년은 인지혁명의 기간이다. ④담화 이론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담화가 협력을 증진시켰다는 데 초점을 두지, 두 종류의 정보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비교하지 않았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사피엔스의 확산과 인지혁명(~"있었다.") ② 유연성 이론(~"공유할 수 있었다.") ③ 담화 이론(~"유지할 수 있었다.") ④ 필자의 결론(~"발전될 수 있었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배경: (인지혁명) / 설명 1: (유연성) / 설명 2: (협력) / 필자: (존재하지도 않는)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유연성' = 정해진 재료만으로도 끝없이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 채점 포인트: '제한된 소리 → 무한한 문장'이라는 대비를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세 개의 설명이 나란히 놓이되 필자가 그중 하나만 '직접적 원인'으로 고르는 회차입니다. 어느 주장이 누구의 것인지 이름표를 붙이며 읽는 것이 급소. 시기(7만·3만 년)를 계산 재료로 오해하게 만든 ③번도 함께 걸러 내세요.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4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오스만 제국의 통치 — 티마르·밀레트·데브쉬르메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세계사

설명형 · 세 제도의 병렬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티마르 #밀레트 #데브쉬르메

나의 예측 (한 문장)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오스만 제국은 정복 지역민의 개종을 통한 통치보다 정복되기 이전의 사회, 경제적 지배 체제를 이용한 통치를 선호하였다. 정복 지역의 기존 세력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종교 자치구도 인정하였던 한편, 정복 지역의 인재를 제국의 엘리트로 영입하기 위한 교육 제도 또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이 정복 지역에 대한 제국의 안정적 지배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국의 경작지와 목축용 토지는 사원에 대한 기부 토지인 와크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술탄의 개인 재산이었다. 그러나 제국의 영토가 정복에 의해 확장되면서 이와 같은 토지 정책은 유지될 수 없었다. 티마르는 술탄이 정복지 토착 귀족이나 토후에게 하사했던 토지이다. 이는 중세 유럽의 봉건 영지와 유사한 것으로 잘못 비교되기도 한다. 티마르 영지를 분배받은 이들은 그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갖기는 했지만 유럽의 중세 영주와는 달리 사법권을 갖지는 못했다. 밀레트는 종교, 문화적 자유가 인정된 종교 자치구인데, 해당 자치구 내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유지와 그에 입각한 교육도 허용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를 총대주교로 하는 정교회 교구가 그 중 하나였다. 총대주교는 정교회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져야 하는 행정 관리이기도 하였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신자 등 비이슬람 교도 관리를 위해 종교 자치구를 인정했지만, 개별 민족을 위한 자치구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 오스만 제국의 정복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서로를 차별하는 현상이 빈번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제국의 종교 자치구 정책 시행 때문에 생겨난 것인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데브쉬르메는 지역의 인재를 제국의 엘리트로 양성하여 그들이 차출된 지역으로 다시 파견하거나 또는 그들을 제국의 중앙관리로 영입하는 인사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상 남자 어린이 징용제도와도 같았다. 각 가정의 장남을 6, 7세 때 개종과 제국 중심의 교육을 위해 콘스탄티노플이나 아나톨리아 등의 중심도시로 끌고 갔다. 제국은 이 제도로 매년 1천~3천 명의 새로운 전사나 충성스런 관리를 충원해 나갈 수 있었다. 데브쉬르메 제도에서 교육받은 이들은 자신이 제국의 엘리트라는 의식이 강했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4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통치 기조 → 토지 제도 → 종교 자치구 → 인재 제도**

기조 개종을 통한 통치보다 정복 이전의 _____ 지배 체제를 이용하는 쪽을 택했다

▼

티마르 토착 귀족에게 하사한 토지 — 세금을 걷을 권리는 있으나 _____ 은 없었다

▼

밀레트 종교·문화의 자유를 인정한 자치구 — 다만 개별 _____ 을 위한 자치구는 불허

▼

데브쉬르메 장남을 6·7세에 데려가 _____ 과 제국 교육을 시킨 사실상의 징용 제도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와크프**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는 종교 자치구의 행정 관리로서 역할을 하였다.

② 밀레트는 종교 자치구로 민족끼리의 상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데브쉬르메 제도는 징용된 어린이를 볼모로 삼아 정복 지역의 반란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④ 티마르 영지를 분배받은 이들의 영지에 대한 권리는 중세 봉건 영지에 대한 영주의 권리와 동일하였다.

⑤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은 정복지에 형성되었던 기존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4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① — 셋째 단락에서 밀레트는 종교 자치구이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를 총대주교로 하는 정교회 교구가 그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어 총대주교는 정교회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져야 하는 행정 관리이기도 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①은 글에서 알 수 있다. 오답: ②정복 지역에서 민족 간 차별이 빈번했지만 그것이 종교 자치구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차별 예방이 밀레트의 목적이라는 서술도 없다. ③데브쉬르메는 인재를 제국의 엘리트로 양성하는 제도로 설명되었을 뿐, 볼모를 통한 반란 예방이라는 목적은 나오지 않는다. ④티마르 영지를 받은 이들은 세금을 거둘 권리는 있었으나 유럽의 중세 영주와 달리 사법권이 없었으므로 권리가 동일하지 않다. 글은 이 둘을 '잘못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⑤제국은 기존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종교 자치를 허용했지만, 데브쉬르메로 어린이를 개종시켜 데려가고 술탄의 토지 정책을 바꾸는 등 기존 질서를 그대로 굳히려 한 것은 아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통치 기조와 세 정책의 예고(~"기여하였다.") ② 토지 정책과 티마르(~"갖지는 못했다.") ③ 밀레트와 민족 차별(~"판단하기 어렵다.") ④ 데브쉬르메(~"무장되어 있었다.") **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기조: (사회, 경제적) / 티마르: (사법권) / 밀레트: (민족) / 데브쉬르메: (개종)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와크프' = 사원에 기부한 토지로, 술탄의 개인 재산에서 예외가 되는 땅. 채점 포인트: '예외'라는 지위를 담았는가. 나머지 경작지와 목축지는 모두 술탄의 것이었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세 제도가 나란히 놓인 병렬 구조라 각 제도의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짝지어 정리해야 하는 회차입니다. 세금은 되지만 사법권은 안 되고, 종교는 되지만 민족은 안 되는 식입니다. 그 경계선을 지운 ②·④번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5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반독점법은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 세 사람의 답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법경제사

논증형 · 입장의 변천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셔먼법 #브랜다이스 #소비자 복지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1890년 독점 및 거래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시한 셔먼법이 제정됐다. 셔먼은 반독점법 제정이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함께 소생산자들의 탈집중화된 경제 보호라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독점적 기업결합 집단인 트러스트가 독점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트러스트가 사적 권력을 강화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은 시민 자치를 중시하는 공화주의 전통이었다. 이후 반독점 운동에서 브랜다이스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독점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독립적 소생산자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했다. 반독점법의 취지는 거대한 경제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 소생산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자치를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공화주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었다. 브랜다이스는 거대한 트러스트에 집중된 부와 권력이 시민 자치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반독점법이 소생산자의 이익 자체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경제와 권력의 집중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독점법이 강력하게 집행된 것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1938년 아놀드가 법무부 반독점국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아놀드는 소생산자의 자치와 탈집중화된 경제의 보호가 대량 생산 시대에 맞지 않는 감상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시민 자치권을 근거로 하는 반독점 주장을 거부했다. 그는 독점 규제의 목적이 권력 집중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 규제를 통해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반독점법의 목적이 소비자 가격을 낮춰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반독점법을 지지하는 이유도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돼지갈비, 빵, 안경, 약, 배관공사 등의 가격'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기 아놀드의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진 것도 소비자 복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 복지에 근거한 반독점 정책은 안정된 법적, 정치적 제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5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셔먼의 두 목적 → 브랜다이스의 초점 → 아놀드의 전환 → 제도의 정착**

셔먼 소비자 이익 보호와 소생산자의 _____ 된 경제 보호를 함께 내세웠다

▼

브랜다이스 소비자가 아니라 독립적 소생산자의 경제를 보호해 _____ 를 지키려 했다

▼

아놀드 시민 자치권 근거를 거부하고 목적을 경제적 _____ 의 향상에 맞추었다

▼

정착 _____ 복지에 근거한 반독점 정책이 안정된 법적·정치적 제도가 되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탈집중화**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셔먼과 브랜다이스의 견해는 공화주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② 아놀드는 독점 규제의 목적에 대한 브랜다이스의 견해에 비판적이었다.
③ 셔먼과 아놀드는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반독점법을 지지했다.
④ 반독점 주장의 주된 근거는 1930년대 후반 시민 자치권에서 소비자 복지로 옮겨 갔다.
⑤ 브랜다이스는 독립적 소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시민 자치를 지키고자 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5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⑤ —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브랜다이스는 독점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독립적 소생산자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소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 했다는 ⑤는 글과 어긋난다. 오답: ①셔먼의 비판은 시민 자치를 중시하는 공화주의 전통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았고, 브랜다이스의 생각에도 공화주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했다. ②아놀드는 소생산자의 자치와 탈집중화된 경제의 보호를 감상적인 생각이라 치부하고 시민 자치권을 근거로 하는 반독점 주장을 거부했으므로 브랜다이스에게 비판적이다. ③셔먼은 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강조했고, 아놀드는 소비자 복지 증진을 핵심으로 보았다. ④1930년대 후반 아놀드의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소비자 복지에 근거한 정책이 제도로 자리 잡았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셔먼법과 셔먼의 두 목적(~"공화주의 전통이었다.") ② 브랜다이스의 초점(~"주장했다.") ③ 아놀드의 전환과 제도의 정착(~"지위를 갖게 되었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셔먼: (탈집중화) / 브랜다이스: (시민 자치) / 아놀드: (효율성) / 정착: (소비자)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탈집중화' = 부와 권력이 한곳에 몰리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 채점 포인트: '집중에서 벗어남'이라는 방향을 담았는가. 소생산자가 여럿 살아남는 경제라는 뜻이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세 인물이 같은 법을 두고 서로 다른 목적을 말하는 회차입니다. 인물별로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를 한 단어로 적어 두면(셔먼: 둘 다 / 브랜다이스: 소생산자 / 아놀드: 소비자) 부정 발문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브랜다이스에게 소비자를 끼워 넣은 ⑤번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6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좌파와 우파는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정치경제

논증형 · 결론 도출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불평등과 재분배 #사회정의 #사회경제 이론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불평등과 재분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로 좌파와 우파는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두 진영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두 진영이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이 지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논증하고자 하는 바다. 우파는 시장 원리, 개인 주도성, 효율성이 장기 관점에서 소득 수준과 생활환경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 개입을 통한 재분배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야 한다. 이 점에서 이들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되도록 방해하지 않는 원천징수나 근로장려세 같은 조세 제도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19세기 사회주의 이론과 노동조합 운동을 이어받은 좌파는 사회 및 정치 투쟁이 극빈자의 불행을 덜어주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불평등을 누그러뜨리고 재분배를 이루려면 우파가 주장하는 조세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거나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강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개입이 생산 과정의 중심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시장 원리의 실패와 이 때문에 생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두 진영이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왜 생겨났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회경제 이론이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 사실 좌우 진영은 사회정의의 몇 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행운으로 얻었거나 가족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불평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생겨난 불평등을 그런 재산의 수혜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점에서 행운과 상속의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혜택 받지 못한 이들, 곧 매우 불리한 형편에 부닥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애써야 할 당사자는 당연히 국가다. 정의로운 국가라면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 평등권을 되도록 폭넓게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생각이다. 불리한 형편에 놓인 이들의 삶을 덜 나쁘게 하고 불평등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국가의 목표를 이루는 데 두 진영이 협력하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거의 분명해졌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7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문제 제기 → 우파의 처방 → 좌파의 처방 → 불일치 지점의 규명**

제기 두 진영이 협력하려면 _____ 하는 지점을 찾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

우파 시장 원리와 효율성을 신뢰하고, 선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_____ 제도만 사용하자고 본다

▼

좌파 조세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수단 공유화 등 더 강력한 _____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규명 대립은 _____ 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경제 이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선순환 메커니즘**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좌파와 우파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애써야 한다.
② 좌파와 우파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③ 좌파와 우파는 사회정의를 위한 기본 원칙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④ 좌파와 우파는 분배 문제 해결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⑤ 좌파와 우파는 불평등을 일으키고 이를 완화하는 사회경제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6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⑤ — 글은 첫머리에서 두 진영이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논증의 목표라고 밝힌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 좌우의 대립이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불평등이 왜 생겨났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회경제 이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못박는다. 따라서 협력의 첫걸음은 그 사회경제 메커니즘을 더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다. 오답: ①자신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글에 없다. ②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의 문제라는 것이 글의 취지다. ③사회정의의 기본 원칙에는 좌우가 '이미' 합의했다고 했으므로 먼저 합의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④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도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생각이라고 했으므로 새로 동의해야 할 결론이 아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문제 제기와 논증의 목표(~"논증하고자 하는 바다.") ② 우파의 주장(~"주장한다.") ③ 좌파의 주장(~"있다는 것이다.") ④ 불일치 지점의 규명과 합의된 원칙(~"거의 분명해졌다.") **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제기: (불일치) / 우파: (조세) / 좌파: (정부 개입) / 규명: (사회정의)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선순환 메커니즘' = 좋은 결과가 다시 좋은 원인이 되어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 채점 포인트: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진다'는 되먹임의 뜻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결론을 고르는 문제에서 '이미 합의된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는 것이 전부인 회차입니다. 글이 합의 사항으로 못박은 내용(③·④)은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단락의 목표 선언과 끝 단락을 이어 읽는 것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7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토지사유제 없이 자본주의는 불가능한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경제제도

논증형 · 반박과 분류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토지사유제 #토지가치공유제 #사용·처분·수익권

나의 예측 (한 문장)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사유 재산 제도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의 양대 축을 이루기 때문에 토지 또한 민간의 소유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토지사유제의 정당성을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립 근거라는 점에서 찾고자 하는 학자도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들은 신성불가침 영역에 대한 도발이라며 이에 반발한다. 토지가 일반 재화나 자본에 비해 지닌 근본적인 차이는 무시하고 말이다. 과연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사유제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일까?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핀란드 등의 사례는 위의 물음에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이들은 토지공유제를 시행하였거나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온 사례이다. 물론 토지사유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토지 공공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당위의 근거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토지의 공공성 강조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 제도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토지 소유권은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각각의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토지 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세 권리 모두 민간이 갖는 토지사유제, 세 권리 모두 공공이 갖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그리고 사용권은 민간이 갖고 수익권은 공공이 갖는 토지가치공유제이다. 한편, 토지가치공유제는 처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두 가지 제도로 분류된다. 처분권을 완전히 민간이 갖는 토지가치세제와 공공이 처분권을 갖지만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기는 토지공공임대제이다.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의 토지 제도는 이 분류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이 중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될 수 없는 토지 제도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뿐이다. 물론 어느 토지 제도가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가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토지사유제 옹호론에 따르면,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토지사유제만이 토지의 오용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토지의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모두를 민간이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토지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이 갖고, 토지에 대해서 민간은 배타적 사용권만 가지면 충분하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22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통념 제시 → 사례로 반박 → 권리별 분류 → 옹호론 재반박**

통념 토지사유제가 _____ 의 성립 근거라며 토지의 공공성을 도발로 여긴다

▼

반박 싱가포르·홍콩·대만·핀란드는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고도 경제를 _____ 으로 발전시켰다

▼

분류 소유권은 사용권·처분권· _____ 으로 나뉘고, 누가 갖느냐에 따라 제도가 갈린다

▼

재반박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세 권리를 모두 민간이 가질 필요는 없고 배타적 _____ 이면 충분하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배타적**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① 토지사유제는 자본주의 성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② 토지사유제를 보장하지 않아도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
③ 토지사유제와 토지가치세제에서는 토지 사용권을 모두 민간이 갖는다.
④ 토지사유제에서는 토지 자원의 성격과 일반 재화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⑤ 토지가치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 이외에도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양한 토지 제도가 존재한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7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④ —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글은 토지사유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토지가 일반 재화나 자본에 비해 지닌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토지사유제에서 토지 자원의 성격과 일반 재화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는 ④는 글에서 알 수 없고, 오히려 반대된다. 오답: ①토지공유제를 시행하거나 공공성을 인정하고도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킨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②토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민간이 갖고 토지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권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으므로, 사유제 없이도 사용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다. ③토지사유제는 세 권리 모두를 민간이 갖고, 토지가치세제는 사용권과 처분권을 민간이 가지므로 둘 다 사용권은 민간의 것이다. ⑤세 가지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제도는 훨씬 더 다양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통념과 문제 제기(~"성립할 수 없는 것일까?") ② 사례를 통한 반박(~"기인한다.") ③ 권리에 따른 제도의 분류(~"그 이후의 문제이다.") ④ 옹호론에 대한 재반박(~"충분하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통념: (자본주의) / 반박: (모범적) / 분류: (수익권) / 재반박: (사용권)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배타적' = 남을 물리치고 혼자만 누리는. 채점 포인트: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는 독점성을 담았는가. 여기서는 사용권에만 붙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세 권리(사용·처분·수익)를 누가 갖느냐로 네 가지 제도가 갈리는 회차입니다. 표를 그려 칸을 채우지 않으면 ③번 같은 선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비판하는 상대의 입장을 필자의 입장인 양 적어 놓은 ④번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8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에밀레종은 왜 그렇게 울리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과학·음향공학

설명형 · 비교와 원리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성덕대왕 신종 #반구형 구덩이 #뒷판

나의 예측 (한 문장)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현존하는 한국 범종 중에서 신라 범종이 으뜸이다. 신라 범종으로는 상원사 동종, 성덕대왕 신종, 용주사 범종이 있으며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에밀레종이라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은 세계의 보배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미술이나 종교의 차원에 국한될 뿐, 에밀레종이 갖는 음향공학 차원의 가치는 간과되고 있다. 에밀레종을 포함한 한국 범종은 종신(鐘身)이 작고 종구(鐘口)가 벌어져 있는 서양 종보다 종신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는 중국 범종과 유사하다. 또한 한국 범종은 높은 종탑에 매다는 서양 종과 달리 높지 않은 종각에 매단다는 점에서도 중국 범종과 비슷하다. 하지만 중국 범종은 종신의 중앙 부분에 비해 종구가 나팔처럼 벌어져 있는 반면, 한국 범종은 종구가 항아리처럼 오므라져 있다. 또한 한국 범종은 중국 범종에 비해 지상에 더 가까이 땅에 닿을 듯이 매단다. 나아가 한국 범종은 종신과 대칭 형태로 바닥에 커다란 반구형의 구덩이를 파두는데, 바로 여기에 에밀레종이나 여타 한국 범종의 숨은 진가가 있다. 한국 범종의 이러한 구조는 종소리의 조음에 영향을 미쳐 독특한 음향을 내게 한다. 이 구덩이는 100헤르츠 미만의 저주파 성분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커다란 울림통으로 작용하여 소리의 여운을 길게 한다. 땅속으로 음파를 밀어 넣어 주려면 뒤에서 받쳐 주는 지지대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 범종에서는 땅에 닿을 듯이 매달려 있는 거대한 종신이 바로 이 역할을 한다. 이를 음향공학에서는 뒷판이라 한다. 땅을 거쳐 나온 저주파 성분은 종신 꼭대기에 있는 음통관을 거쳐 나온 고주파 성분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이 듣기에 가장 적합한 소리, 곧 장중하고 그윽하며 은은히 울려 퍼지는 여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23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가치 제시 → 서양·중국 종과 비교 → 구조의 특징 → 소리의 원리**

가치 성덕대왕 신종의 _____ 차원의 가치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

비교 종신이 크고 낮게 매다는 점은 중국과 같으나, 종구가 _____ 처럼 오므라져 있다

▼

구조 종신과 대칭 형태로 바닥에 커다란 _____ 의 구덩이를 파둔다

▼

원리 구덩이가 저주파를 땅에 밀어 넣고 종신이 _____ 역할을 해, 음통관의 고주파와 조화된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뒷판**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① 현존하는 한국 범종 중 세 개 이상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② 한국 범종과 중국 범종은 종신 중앙 부분의 지름이 종구의 지름보다 크다.
③ 한국 범종의 종신은 저주파 성분을 땅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뒷판 역할을 한다.
④ 한국 범종의 독특한 소리는 종신과 대칭 형태로 파놓은 반구형의 구덩이와 관련이 있다.
⑤ 성덕대왕 신종의 여음은 음통관을 거쳐 나오는 소리와 땅을 거쳐 나오는 소리가 조화되어 만들어진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8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② —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한국 범종은 종구가 항아리처럼 오므라져 있으므로 종신 중앙의 지름이 종구의 지름보다 크다. 그러나 중국 범종은 종신의 중앙 부분에 비해 종구가 나팔처럼 벌어져 있다고 했으므로 종구의 지름이 더 크다. 두 나라 범종을 묶어 같다고 한 ②는 글에서 알 수 없다. 오답: ①상원사 동종, 성덕대왕 신종, 용주사 범종이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세 개 이상이다. ③땅속으로 음파를 밀어 넣으려면 뒤에서 받쳐 주는 지지대가 있어야 하고, 땅에 닿을 듯이 매달린 거대한 종신이 그 역할을 하며 이를 뒷판이라 한다고 했다. ④반구형 구덩이가 저주파를 땅속으로 스미게 하고 울림통으로 작용해 여운을 길게 한다고 했다. ⑤땅을 거쳐 나온 저주파와 음통관을 거쳐 나온 고주파가 조화를 이루면서 여음이 발생한다고 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신라 범종의 가치와 간과된 측면(~"간과되고 있다.") ② 서양·중국 범종과의 비교(~"진가가 있다.") ③ 구조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원리(~"발생하는 것이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가치: (음향공학) / 비교: (항아리) / 구조: (반구형) / 원리: (뒷판)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뒷판' = 소리를 한쪽으로 밀어 보내기 위해 뒤에서 받쳐 주는 판. 채점 포인트: '받쳐 준다'는 지지의 기능을 담았는가. 여기서는 거대한 종신이 그 역할을 한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서양·중국·한국 세 범종을 '같은 점'과 '다른 점'으로 갈라 읽는 회차입니다. 같은 점(종신이 큼, 낮게 매닮)과 다른 점(종구의 모양)을 섞어 놓은 ②번이 정확히 그 급소를 찌릅니다. 세 항목 비교표를 그려 보세요.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9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만동묘와 대보단 — 명나라 황제의 제사는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조선사

설명형 · 두 제단의 연대기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만동묘 #대보단 #만절필동

나의 예측 (한 문장)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송시열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낸 명나라 신종과 그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제사를 거행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는 스승의 유명(遺命)을 이어받아 괴산군 청천면에 만동묘(萬東廟)를 만들고 매년 두 황제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만동묘라는 명칭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암(朝宗巖)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글자의 처음과 끝 자를 딴 것이다. '만절필동'이라는 글자에는 황하가 여러 번 굽이쳐도 결국은 동쪽으로 나아가 황해로 흘러 들어가듯이, 조선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명이 원병을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창덕궁 후원에 있는 대보단(大報壇)도 명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건립된 제단이다. 대보단의 제례는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때 사용하는 제물과 기구는 문묘 제례 때 쓰던 것과 같았다. 영조 25년부터 이 대보단에서 명나라의 태조와 그 마지막 황제 의종도 함께 매년 제사 지내기 시작했다. 영조는 중앙 관료들로 하여금 빠짐없이 대보단 제례에 참석하도록 했는데, 정조는 이를 고쳐 제례 집행자만 참례하게 했다. 그렇지만 영조의 전례에 따라 대보단에 자주 행차하여 돌아보는 등 큰 관심을 표명했다.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는 명이 망한 뒤에 중화의 정통을 이은 나라가 조선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대보단 제례는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만동묘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었다. 만동묘에서 명 황제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무렵이 되면 전국의 유생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제사 비용은 날로 많아졌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만동묘에 전답을 하사하여 제사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었다. 헌종 때에는 만동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충청도 관찰사가 참석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만동묘는 이처럼 위상이 높았지만, 운영비 조달을 핑계로 양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등 폐해가 컸다. 만동묘를 싫어하던 흥선대원군은 대보단에서 거행하는 것과 같은 제사를 만동묘에서 또 지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는 만동묘가 설립될 때부터 매년 지내오던 제사를 폐지하였다. 또 명 황제들의 신주를 만동묘에서 대보단으로 옮겼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후 만동묘 제사는 부활되었지만 순종 황제 재위 때 다시 철폐되었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24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만동묘의 유래 → 대보단의 운영 → 위상의 확대 → 폐지와 부활**

유래 송시열의 뜻을 이어 권상하가 세웠고, 이름은 _____ 의 처음과 끝 자를 땄다

▼

대보단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조 25년부터 태조와 _____ 도 함께 제사

▼

확대 영조는 만동묘에 _____ 을 하사하고, 헌종 때는 충청도 관찰사가 참석하게 했다

▼

폐지 _____ 이 제사를 없애고 신주를 대보단으로 옮겼으며, 순종 때 다시 철폐되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유명**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영조는 만동묘를 없애고 그 제사를 대보단으로 옮겨 지내도록 하였다.
② 만동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국왕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③ 헌종 때부터 대보단에서 제사를 지낼 시에 충청도 관찰사가 참석하였다.
④ 정조 때 만동묘와 대보단 두 곳에서 모두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을 기려 제사를 지냈다.
⑤ 만동묘라는 이름은 선조가 그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내린 어필의 처음과 끝 글자를 딴 것이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9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④ — 만동묘에서는 명 신종과 의종에 대한 제사를 매년 지냈고, 대보단에서는 영조 25년부터 신종과 함께 태조와 의종도 제사 지내기 시작했다. 정조는 대보단 제례의 참석 범위를 집행자로 줄였을 뿐 제사를 폐지하지 않았고 자주 행차하며 관심을 보였다. 만동묘의 제사도 흥선대원군 때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정조 때 두 곳 모두에서 신종과 의종을 기려 제사를 지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①만동묘의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대보단으로 옮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다. 영조는 오히려 전답을 하사해 제사를 도왔다. ②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곳은 대보단이다. ③충청도 관찰사가 참석하도록 한 것은 만동묘의 제사이지 대보단이 아니다. ⑤만동묘라는 이름은 조종암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 '만절필동'에서 딴 것으로, 만동묘 건립을 기념해 내린 글씨가 아니다. 만동묘는 송시열의 제자 권상하가 훨씬 뒤에 세웠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만동묘의 유래와 만절필동(~"담겨 있다.") ② 대보단의 제례와 영조·정조(~"관심을 표명했다.") ③ 두 곳의 위상 확대(~"조치도 취해졌다.") ④ 폐해와 폐지, 부활과 철폐(~"다시 철폐되었다.") **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유래: (만절필동) / 대보단: (의종) / 확대: (전답) / 폐지: (흥선대원군)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유명' = 죽으면서 남긴 명령이나 당부. 채점 포인트: '살아서 한 말'이 아니라 '남기고 간 뜻'이라는 점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두 제단(만동묘·대보단)과 여섯 왕(선조·영조·정조·헌종·흥선대원군·순종)이 격자로 얽힌 회차입니다. 가로에 제단, 세로에 왕을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칸을 채우면 됩니다. 두 제단의 사건을 맞바꾼 ①·②·③번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10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네트워크 — 힘을 얻은 것은 누구인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정보사회론

설명형 · 특성과 양면성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점조직 #허브·모든 채널 #비국가행위자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네트워크란 구성원들이 위계적이지 않으며 독자적인 의사소통망을 통해 서로 활발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마약조직 등에 나타나는 점조직은 기초적인 형태의 네트워크이며, 정교한 형태의 네트워크로는 행위자들이 하나의 행위자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허브' 조직이나 모든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채널' 조직이 있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이 커지지만, 정부를 비롯한 외부 세력이 와해시키기도 어렵게 된다. 특정한 지도자가 없고 핵심 기능들이 여러 구성원에 중복 분산되어 있어, 조직 내의 한 지점을 공격해도 전체적인 기능이 조만간 복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이념과 목표를 공유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직접 행동에 옮긴다면, 이러한 조직을 상대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네트워크가 반드시 첨단 기술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것은 네트워크다. 그렇지만 인터넷과 통신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은 정교한 형태의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여놓았다. 이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시민 단체, 범죄 조직, 그리고 테러 단체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정치, 외교, 환경, 범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국가행위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가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반면 비국가행위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힘을 얻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의 확산을 위해 애쓰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네트워크의 힘을 바탕으로 기존의 국가 조직이 손대지 못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반면 테러 및 범죄 조직 역시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의 추격을 피해가며 전 세계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양쪽 모두 전례 없는 기회를 얻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끌어내 정부의 기능을 보완, 견제하고 테러 및 범죄 조직의 발흥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18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라책형) 문 25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개념과 유형 → 복잡성의 효과 → 기술이 낳은 변화 → 양면성과 과제**

유형 기초적인 _____ 에서 허브 조직, 모든 채널 조직으로 정교해진다

▼

효과 복잡할수록 유지 비용은 커지지만 외부 세력이 _____ 기도 어려워진다

▼

변화 첨단 기술이 유지 비용을 줄이자 _____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

양면 시민사회 단체와 테러·범죄 조직이 함께 기회를 얻은 _____ 의 두 얼굴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비국가행위자**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 중 점조직의 결집력이 가장 강하다.
② 네트워크의 확산은 인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할 것이다.
③ 네트워크의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력은 조직의 정교성이나 복잡성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④ 기초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는 구성원의 수가 적어질수록 정교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⑤ 정교한 형태의 네트워크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진 것은 국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된 결과를 낳았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10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⑤ — 글은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발달이 정교한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여놓았고, 그 때문에 시민 단체와 범죄·테러 조직이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국가행위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가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축소되었다고 명시한다. 비용 하락에서 국가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⑤다. 오답: ①점조직은 기초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로 소개되었을 뿐, 결집력의 강약은 비교되지 않았다. ②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고 했을 뿐 어느 쪽 영향이 더 클지는 말하지 않았다. ③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외부 세력이 와해시키기 어려워진다고 했으므로 정교성·복잡성과 대응력은 관계가 있다. ④구성원 수가 적어질수록 정교해진다는 서술은 어디에도 없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네트워크의 정의와 유형, 복잡성의 효과(~"더욱 힘들어진다.") ② 첨단 기술이 낳은 변화(~"낼 수 있게 되었다.") ③ 양면성과 시대의 과제(~"과제가 될 것이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유형: (점조직) / 효과: (와해시키) / 변화: (비국가) / 양면: (야누스)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비국가행위자' = 국가가 아니면서 국제 사회에서 실제로 힘을 행사하는 주체. 채점 포인트: '국가가 아니다'와 '영향력이 있다'를 함께 담았는가. 시민 단체와 범죄 조직이 모두 여기 들어간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글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훈련에 좋은 회차입니다. 유형은 나오지만 결집력 비교는 없고, 양면성은 나오지만 어느 쪽이 크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없는 비교를 만들어 낸 ①·②·④번이 급소.